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  
맑음

제목 : 수영장 간날

오늘 아침 아버차르 타고 가족과 함께 부천 워터파크를 갔다 나는 첫번째로 파도 타기를 했다.

두번째로 엄마와 수영장을 한 바퀴돌았다.

그리고 야회 4명정도 갔다.

안전요원 누나와 형아들이 음악에 맞춰 춤도 추었다.

신나고 재미있었다. 수영을 다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

아버가 허니밀짚을 먹자고 해서 먹고 복음반도

먹었다. 참 맛있었다. 그 중에서 즉꾸미가 제일

맛있었다.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.